

농촌의 현재와 미래,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충남형 농지이양 은퇴직불제'

충청투데이 | 승인 2025.03.12 | 19면

이민수 한국농어촌공사 충남지역본부장

농업 농촌이 고령화된다는 것은 비단 농업인들이 나이 들고 영농에 힘이 부친다는 뜻만은 아니다.

몸이 아프니 병원비도 들고, 어쩌다 다치거나 큰 병이 들면 큰돈이 들고, 올라가는 물가에 필요한 생활비까지 늘어나니 이전보다 돈이 더 필요하다.

한편에서는 농업을 시작하거나 농업경영을 더 키우고자 하는 청년농이 마땅한 농지를 찾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청년 농업인의 63%가 농지를 구하지 못하는 것이 영농의 가장 어려운 점이라고 응답했다.

즉 세대 간의 고충을 한눈에 보자면 고령 농업인은 힘든 몸을 이끌고 농업을 계속하기 어려운 데다 경제적·금전적인 어려움도 가중되고 있고, 청년 농업인은 새로이 농업을 시작하거나 영농면적을 더 늘리고 싶지만 농지가 없어서 서로 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영농 은퇴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고령농업인의 재정적 여건을 지원하고 청년 농업인에게는 필요에 맞는 농지를 제공하고자 농림축산식품부, 충청남도, 한국농어촌공사가 맞손을 잡고 만든 제도가 바로 '충남형 농지이양 은퇴직불제'다.

65~84세의 고령농이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청년농업인에게 매도하면 농지 매도 대금에 더하여 직불금을 지급한다. 최대 10년간 1ha당 매도시 연 1,100만원(정부 600만원+충남 500만원), 매도조건부 임대시 연 830만원(정부 480만원+충남 35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농어촌공사에서 매입한 농지는 청년창업농, 2030 청년농 등 농업 시작 단계에 있는 청년 농업인에게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고령 농업인들의 재정적 여건을 안정되게 함과 동시에, 청년 농업인들에게 가장 절실했던 농지를 지원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제도인 것이다.

청년이 돌아와 일하는 농어촌, 안정된 노후가 있는 농어촌, 모든 세대가 더불어 잘 사는 농어촌을 만드는 일에 ‘충남형 농지이양 은퇴직불제’가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신의 한 수’가 되기를 희망해 본다. 농업과 농촌의 현재와 미래를 아우르는 희망을 주기 위한 한국농어촌공사의 도전과 노력은 현재 진행형이다.



충청투데이 cctoday@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